

□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< 2018년 창의브랜드 융복합 쇼케이스 공간 구축 운영 >

최종 선정결과 종합심사평

본 사업은 “상시 쇼케이스 공간 운영을 통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지속적 비즈니스 및 홍보 플랫폼 제공”을 목적으로, 1. 패션위크 등과 연계한 쇼룸 운영 통한 해외진출 브랜드의 해외 비즈니스 판로 개척과 2. 콜라보 팝업스토어, 문화/예술 협업 전시 등을 통한 브랜드 홍보를 주요한 사업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.

금번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에는 총 3개 업체가 제안에 참여하였고, 최종적으로 1개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3 :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.

평가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pool 시스템에서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을 자동으로 3배수 추출, 평가 당일 참석 가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. 동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패션 장르 ① 디자이너/기획/제작 분야에서 2명, ②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2명, ③ 패션 행사/컨설팅/MD 분야에서 1명, ④ 협회/학계/정책/대외협력 분야에서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고, ⑤ 예산 및 재정/회계 분야의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.

본 선정평가는 사전에 공지된 대로 수행기관의 전문성, 사업 이해도, 사업 수행능력, 사업관리 방안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,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각 평가기준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세부적인 평가항목들을 활용하였습니다.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개찰을 진행하여 최종 1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.

평가위원회는 상기 평가기준 및 평가 세부항목에 따라 제안서 및 제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각 브랜드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토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.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였고, 평가위원들은 입점 브랜드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실적 창출방안, 입점 브랜드 컨설팅 및 관리방안, 뉴욕 쇼룸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용방안, 쇼룸 운영전략,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질의하였습니다. 또한 주관사 및 협력사 간 역할분담이나 상호간의 유기적인 업무관련성 등을 확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또한 평가위원들은 개별 제안내용으로부터 제안사의 역량과 중점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, 각 제안사들의 분야별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. 다만,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사들의 사업 이해도와 다소 미흡한 추진전략 등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.